

어린이병원, 소아암·선천성심장병 등 15년 간 6만여 중증환아 수술



서울아산병원 소아외과 남궁정만 교수(왼쪽)가 간모세포종을 앓고 있는 환아에게 간절제술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이 개원 15주년을 맞았다. 2009년 3월 개원한 어린이병원은 개원 15주년이 지난 5월

까지 소아암, 선천성 심장 질환 등 중증 질환 소아 환자 약 6만 명을 수술했다.

또 수술적 치료뿐만 아니라 국내 소아응급환자, 소아 및 신생아 중환자 치료에도 힘써왔다. 지난해 3만 8천여 명을 치료한 것을 합쳐 15년간 총 45만여 명을 진료하여 국내에서 가장 많은 소아 응급환자 진료수를 기록했다.

어린이병원은 소아 응급 환자를 더욱 체계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2010년부터 국내 최초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열고 365일 24시간 전담전문의 진료 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중증 질환 환아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 및 관리를 위해 29개 병상의 소아중환자실과 62개 병상의 신생아중환자실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지금도 국내 최대 규모로 지금까지 1만 3천여 명의 환자가 소아 및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2024 포천시 이주민 한마당 개최



포천시 이주민 한마당 축제에서 필리핀 이주민들이 전통의상을 입고 전통춤을 추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은 6월 2일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포천린넨센터 운동장에서 이주민을 위한 '2024 포천시 이주민 한마당'을 개최했다. 서울아산병원은 2005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족 등 고향을 떠난 이주민을 위한 화합의 장을 마련해 왔으며, 이날 행사는 포천시와 포천시 이주민 공동체, 포천나눔의집 이주민지원센터 등이 함께 준비했다.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파키스탄 등 10개국 400여 명의 이주민과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 소통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UAE아산소화기병원 착공식



UAE아산소화기병원 착공식에서 서울아산병원 박수성 기획조정실장(왼쪽에서 세 번째) 등 서울아산병원 관계자와 두바이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의 첫 글로벌 병원이자 걸프협력회의(GCC) 국가 최초의 통합형 소화기전문병원인 UAE아산소화기병원(가칭) 착공식이 7월 10일 두바이헬스케어시티 II에서 열렸다. 2026년 완공 예정인 UAE아산소화기병원은 연면적 2만 1,150㎡,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로 중환자실 포함 65개 병상과 4개 수술실을 갖추게 된다. 소화기암, 간이식 관리 등 고난도 치료를 통해 중동 중증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현지 의료 수준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